

한국 규방공예에 대한 실태조사 및 활용 방안 모색

이 연 순

영남대학교 섬유패션학부 교수

A Study on the Current Trend and Implication for Development of *Gyubang* Craft

Youn-Soon Lee

Prof., Dept. of Clothing & Fashion, Yeungnam University

(2008. 9. 18. 접수; 2008. 11. 17. 수정; 2008. 11. 24. 채택)

Abstract

This article aims to discover the current status and appropriate way to research Gyubang craft, expecting its development and preservation, and elevating it to Korea's unique artistic textile culture. It also searches improved methods for Gyubang craft as the following:

First, in order to avoid confusions about Gyubang craft, appropriate concepts and definitions of Gyubang craft must be settled through a discussion among experts. Second, by activating economic activities at lower ratio, among purposes of Gyubang craft, achievements must be elevated. Third, in order to settle down the difficulties of Gyubang craft, a variety of methods such as effective sewing machines and manufacturing techniques as well as providing materials at a reasonable price, considering practical ways through diversifying products, elevating the economy of crafts, exploring sales routes, improving educational contents, and expanding educational places must be facilitated. Fourth, for nurturing talented and excellent human resources in the area of Gyubang craft, the followings should be considered: diversifying contents of education, developing textbooks, improving instructors' quality, providing reasonable cost of education, educating on the utilization and application of Gyubang craft, introducing efficient teaching methods through textbooks and multimedia, awarding 'certificates' to trainees, and permitting certificate holders' to instruct Gyubang craft. Finally, it is convinced that the achievement of production, pride of preserving tradition, pleasure of procedural work, economic activities as experts, and sales of products will be reinforced, and the population for Gyubang craft is also expected to increase.

By elevating Gyubang craft into Korea's traditional textile art, Korea's global competitiveness in the area of textile should be strengthened.

Key Words: Gyubang Craft's meaning(규방공예 의미), Classification of Gyubang Craft(규방공예 분류), Methods of Gyubang Craft(규방공예 기법), Education of Gyubang Craft(규방공예 교육)

Corresponding author ; Youn-Soon Lee

Tel. +82-53-810-2792, Fax. +82-53-752-1674

E-mail : yslee2@ynu.ac.kr

I. 서론

조선시대를 중심으로 한 한국전통사회에서는 여성의 사회활동이 제한되어, 주로 가정 내 거처에서 내훈서(內訓書)에 입각하여 가정 내의 예의범절을 익히고, 문자를 배우고 음식, 바느질 등 가사기술을 배우는 것이 관습적이었다.¹⁾ 이와 같은 시대적 상황 속에서 여성들은 폐쇄된 공간 내의 단조로운 생활에서 탈피하고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글쓰기 등 문학 활동을 행하였으며, 또한 여러 가지 재료들을 사용하여 생활용품, 장신구 등 공예품을 만드는 등의 문화를 형성하게 되었다.²⁾ 이러한 한국 전통사회 여성들의 문학 활동을 그들이 거처하는 안방을 의미하는 규방(閨房)이라는 용어를 빌어서 오늘날 규방가사(閨房歌詞)라고 말하며, 그들의 문화를 규방문화라고 말하고 있다.³⁾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 전통사회에서 여성들이 규방에 모여서 공예품을 만드는 활동, 공예품 및 그 기술을 오늘날 규방공예(閨房工藝)라고 일컫고 있다.⁴⁾

전통사회에서 현대사회로 이행해 오면서 급격한 기계문명의 유입 등 현대화로 인하여, 전통적인 것을 고루한 것으로 배척되는 경향이 높아지는 추세에 따라 수공으로 제작하는 규방공예는 쇠퇴하게 되었으며, 재봉틀의 편리함이 만연하게 되었다.⁵⁾ 그러나 오늘날 정보사회에서 글로벌화로 인하여 국가나 민족의 정체성이 희박해짐에 따라 세계 각국이나 민족은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고유한 문화와 전통을 보존시키는 경향이 높다.⁶⁾ 이에 규방공예에 대한 관심과 그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⁷⁾

규방공예에 관한 선행연구에는 이미석과 이선재⁸⁾의 향집에 관한 연구, 김옥광⁹⁾의 조선시대의 보자기에 나타난 문양연구, 이정수¹⁰⁾의 조각보의 분석적 연구 등 규방문화에 관한 연구들,^{11),12),13),14),15)} 장정현과 권영숙의¹⁶⁾ 한국 전통 주머니에 나타난 감성이미지, 이정수와 송명건¹⁷⁾의 조각보의 면구성과 테셀레이션 비교 연구, 등 미학적 연구 및 규방공예품을 응용한 디자인 제안에 관한 연구들^{18),19),20),21),22),23),24),25)}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규방공예 전반에 대한 현황분석 및 방향모색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다.

이에 본 연구는 규방공예 전반에 대한 실태를 조사, 분석하여, 현행 규방공예의 문제점과 개선할 점 등을 파악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나아갈 방향 및 활용방안에 대해 모색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전통 규방공예의 현황에 대해 바르게 인식하고, 오늘날의 시각에서 재조명해 봄으로써, 규방공예의 가치를 고양시키고, 규방공예를 활용한 현대적 패션상품의 개발방향 설정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궁극적으로는 규방공예를 고유한 섬유예술 문화로 승화시키고, 이를 응용하여 현대적 패션상품 개발을 촉진시켜, 지역 및 한국 섬유패션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제경쟁력을 높이고자 함이다.

II. 연구방법

1. 조사대상자

한국 전통문화 관련기관, 대학(원), 대학부설 사회교육원, 백화점 등의 문화센터, 여성회관 등 지자체 산하기관, 규방공예 관련 인터넷카페 등 동호회 및 개인공방 등에서 규방공예 교육을 받고 있거나 교육을 필한 후에 현재 규방공예를 하고 있는 20세 이상 여성 300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행하였다.

2. 조사내용

규방공예에 대한 인식, 목적 등 규방공예에 전반에 대한 내용 3 문항, 재료입수 등 규방공예 작업과 관련된 4 문항, 규방공예에 대한 견해 7 문항, 조사대상자 기초사항 4 문항, 총 18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3. 조사방법 및 일시

설문지법을 사용하였으며, 예비조사를 2007년 9월 3일부터 9월 28일까지 실시한 후에 설문지들 수정 보완하여, 본 조사는 2007년 10월 4일부터 11월 30일까지 행하였다.

<표 1> 규방공예 의미에 대한 이해

단위: 명(%)

규방공예 의미	넓은 의미	중간적 의미	좁은 의미	계	χ^2 값
전 체	48(24.7)	107(49.7)	55(25.6)	216(100)	33.00**
전통문화 전문기관	12(34.3)	20(57.1)	3(8.6)	35(100)	
대학(원)	12(42.9)	10(35.7)	6(21.4)	28(100)	
대학부설 사회교육원	6(22.2)	16(59.3)	5(18.5)	27(100)	
여성회관 등 지자체기관	7(21.2)	13(39.4)	13(39.4)	33(100)	
백화점 등 문화센터	6(17.6)	17(50.0)	11(32.4)	34(100)	
개인공방 등 전문학원	5(19.2)	12(46.2)	9(34.6)	26(100)	
인터넷 카페등 동호회	5(15.6)	19(59.4)	8(25.0)	32(100)	

** p < .01

4. 자료처리 방법

SPSS Window 패키지에 의해 각 항목별 평균치와 표준편차를 구하고, 조사대상자의 기초사항에 따른 유의한 차를 검정하고 그 결과를 분석 고찰하였으며, 현황조사 결과를 토대로 하여 규방공예의 방향에 대해 모색하였다.

1) 규방공예의 의미

규방공예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얻기 위해, 규방공예 의미의 이해에 대해 조사한 결과, 교육기관에 따라 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가 인정되었다<표 1>.

교육기관에 따라, 대학(원)은 “넓은 의미”로 이해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여성회관 등 지자체 산하기관은 “넓은 의미” 및 “중간적 의미”로 이해하는 비율이 비슷하며, 그 외 교육기관들은 “중간적 의미”로 이해하는 비율이 높다. 또한 전통문화 전문기관, 대학부설 사회교육원 및 대학(원)의 경우에는 “좁은 의미”로 이해하는 비율이 가장 낮는데 비해, 여성회관 등 지자체 산하기관, 백화점 등의 문화센터, 개인공방 등 전문학원과 인터넷카페 등 동호회의 경우에는 “좁은 의미”보다 “넓은 의미”로 이해하는 비율보다 높다. 전반적으로 “중간적 의미”로 이해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로 이해하는 비율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규방공예의 용어가 여러 측면에서 사용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즉 사전²⁶⁾적으로는 “규방에서 만드는 모든 공예품 및 그 기술”(넓은 의미)이며, 전통공예²⁷⁾를 사용재료 및 방법에 따라 “종이공예”, “목공예”, “규방공예” 등으로 분류되는데, 이 경우의 “규방공예”는 “직물, 실 등 섬유를 사용하여 자수, 염색, 매듭, 누비, 침선(바느질)의 방법으로 제작한 공예품 및 기술”로 이해된다(중간적 의미). 근래 활발히 행해지고 있는 사회교육장²⁸⁾에서는 강좌명을 자수반, 전통매듭반, 천연염색반, 규방공예반 등으로 구분하는데 이 경우의 “규방공예반”에서는 보자기, 주머니 등 침선소품을 제작(좁은 의미)하는 교육을 행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2. 규방공예를 하는 목적

규방공예를 하는 주된 목적을 조사한 결과, 교육기관, 규방공예 경력, 연령대 및 직업에 따라 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가 인정되었으며, 그 결과는 <표 2>와 같다.

전통문화전문기관, 대학원부설 사회교육원 및 개인공방 등 사설전문학원, 경력과 연령대가 높을수록, 규방공예 관련업자 및 교육자는 “제품 판매 등 경제활동”과 “규방공예 전문가 또는 공방운영” 등 규방공예 전문가를 목적으로 하는 비율이 높고, 대학(원)의 피교육자들은 “교과목 이수 또는 누리사업 참여” 등의 “기타사항”의 비율이 높으며, 여성회관 등 지자체 산하

<표 2> 규방공예를 하는 목적

단위: 명(%)

변인		여가선용/ 취미생활	제작품판매 등경제활동	전시 등 예술활동	전문강사/ 공방운영	기타(교과목 이수 등)	계	χ^2 -값
전 체		74(34.3)	53(24.6)	46(21.3)	25(11.5)	18(8.3)	216(100)	
기관	전통문화 전문기관	9(25.7)	16(45.7)	8(22.9)	2(5.7)	0(0.0)	35(100)	182.92***
	대학(원) 정규과정	1(3.6)	2(7.1)	11(39.3)	1(3.6)	13(46.4)	28(100)	
	대학원 부설 평생교육원	3(11.1)	12(44.5)	4(14.8)	7(25.9)	1(3.7)	27(100)	
	여성회관 등 지자체산하기관	20(60.6)	3(9.1)	5(15.2)	4(12.1)	1(3.0)	33(100)	
	백화점 등 시설문화센터	23(65.7)	5(14.3)	4(11.4)	2(5.7)	1(2.9)	35(100)	
	개인공방 등 시설전문학원	7(26.9)	10(38.5)	4(15.4)	4(15.4)	1(3.8)	26(100)	
	인터넷 카페 등 동호회	11(34.4)	5(15.6)	10(31.3)	5(15.6)	1(3.1)	32(100)	
경력	1년 미만	45(49.4)	19(20.9)	10(11.0)	5(5.5)	12(13.2)	91(100)	63.60***
	1-2년	16(40.0)	8(20.0)	10(25.0)	4(10.0)	2(5.0)	40(100)	
	2-3년	5(16.1)	10(32.3)	9(29.0)	5(16.1)	2(6.5)	31(100)	
	3-4년	6(23.1)	5(19.2)	10(38.5)	5(19.2)	0(0.0)	26(100)	
	4년이상	2(7.1)	11(39.3)	7(25.0)	6(21.4)	2(7.1)	28(100)	
연령	20대	6(17.6)	6(17.6)	7(20.6)	3(8.8)	12(35.3)	34(100)	54.14***
	30대	29(37.7)	20(26.0)	14(18.2)	11(14.3)	3(3.9)	77(100)	
	40대	32(37.2)	22(25.6)	19(22.1)	10(11.6)	3(3.5)	86(100)	
	50대 이상	7(36.8)	5(26.3)	6(31.6)	1(5.3)	0(0.0)	19(100)	
직업	전업주부	53(55.2)	16(16.7)	16(16.7)	10(10.4)	1(1.0)	96(100)	133.21***
	대학(원)생	3(11.5)	1(3.9)	9(34.6)	0(0.0)	13(50.0)	26(100)	
	교육자/강사	2(8.7)	7(30.4)	9(39.1)	5(21.7)	0(0.0)	23(100)	
	관련업종사자	4(12.1)	15(45.5)	9(27.3)	3(9.1)	2(6.1)	33(100)	
	타직종종사자	12(31.6)	14(36.8)	3(7.9)	7(18.4)	2(5.3)	38(100)	

*** p < .001

기관, 백화점 등 문화센터 및 인터넷카페 등 동호회, 전업주부들은 “여가선용 및 취미활동”이 높다. 전반적으로 “여가선용 또는 취미생활”이 가장 높으나, 규방공예를 경제활동인 “제작품판매” 및 “규방공예 전문강사/공방경영”의 비율을 합하면 “여가선용 또는 취미생활” 보다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3. 규방공예 목적의 달성도

규방공예의 목적 달성도를 조사한 결과, 교육기관, 경력 및 규방공예 목적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인정되었으며(표 3), 5점 척도로 환산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교육기관에 따라서 전통문화 전문기관, 대학부설 사회교육원 및 개인공방 등 전문학원은 목

<표 3> 교육기관 및 경력에 따른 규방공예 목적의 달성도

단위: 명(%)

변인		매우 높다	높다	보통이다	낮다	매우 낮다	계	χ^2 -값
전 체		16(7.4)	58(26.9)	64(29.6)	56(25.9)	22(10.2)	216(100)	53.40**
교육 기관	전통문화 전문기관	3(8.6)	6(17.1)	11(31.4)	11(31.4)	4(11.5)	35(100)	
	대학(원) 정규과정	2(7.1)	4(14.3)	17(60.7)	4(14.3)	1(3.6)	28(100)	
	대학원 부설 평생교육원	2(7.4)	5(18.6)	8(29.6)	8(29.6)	4(14.8)	27(100)	
	여성회관 등 지자체산하기관	2(6.1)	12(36.4)	11(33.3)	5(15.1)	3(9.1)	33(100)	
	백화점 등 문화센터	3(8.6)	16(45.7)	8(22.9)	6(17.1)	2(5.7)	35(100)	
	개인공방 등 사설전문학원	1(3.8)	4(15.5)	5(19.2)	11(42.3)	5(19.2)	26(100)	
	인터넷 카페 등 동호회	3(9.4)	11(34.4)	4(12.4)	11(34.4)	3(9.4)	32(100)	
경력	1년 미만	3(3.3)	18(19.8)	33(36.3)	26(28.6)	11(12.1)	91(100)	28.09*
	1-2년	2(5.0)	10(25.0)	16(40.0)	9(22.5)	3(7.5)	40(100)	
	2-3년	2(6.5)	11(35.5)	7(22.6)	9(29.0)	2(6.5)	31(100)	
	3-4년	4(15.4)	9(34.6)	4(15.4)	6(23.1)	3(11.5)	26(100)	
	4년 이상	5(17.9)	10(35.7)	4(14.3)	6(21.4)	3(10.7)	28(100)	

* p < .05 ** p < .01

<표 4> 규방공예 목적에 따른 달성도

규방공예 목적	여가선용/ 취미생활	제작품 판매 등 경제활동	전시 등 예술활동	규방공예강 사/공방운영	교과목이수 등 기타	전체	F 값
평균(표준편차)	3.81(0.53)	2.20(0.35)	2.87(0.49)	2.30(0.37)	3.28(0.54)	3.00(0.81)	11.73***
	a	d	c	d	b	bc	

*** p < .001

a, b, c, d는 Duncan test 결과 p<.05 수준에서 유의차가 있는 집단들을 다른 문자로 표현한 것임(a>b>c>d)

적달성도가 낮으며, 대학(원)은 보통이고, 여성회관 등 지자체산하기관과 백화점 등 문화센터 대체로 높고, 인터넷 카페 등 동호회는 달성도가 “높다”와 “낮다”가 비슷하다. 규방공예 경력에 따라서는 경력이 많을수록 목적달성도가 높다. 규방공예 목적이 “여가선용/취미생활” 및 “교과목 이수 등 기타인 경우에는 달성도가 다소 높고, “작품제작” 및 “규방공예강사/공방운영” 등 경제활동은 낮게 나타났다.

4. 규방공예 재료 수급방법

효율적인 재료 수급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재료의 수급방법 현황에 대해 조사하였으며, 교육기관, 경력, 연령대 및 직업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인정되었다<표 5>.

전통문화전문기관,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문화센터 및 사설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교육기관의 패키지 구입”이, 대학(원)에서는 “교육기관에서 제공”, 지자체산하 단체와 동

<표 5> 규방공예 재료 수급방법

단위: 명(%)

변인		교육기관 의 패키지	재료업체 의 패키지	공동 구입, 나눔 사용	개별 구입	교육기관 제공	계	χ^2 -값
전 체		114(52.8)	13(6.0)	12	49(22.7)	13	120	
기 관	전통문화전문기관	26(74.3)	0(0.0)	5(14.3)	4(11.4)	0(0.0)	35(100)	151.72***
	대학(원)	1(3.6)	3(10.7)	2(7.1)	9(32.1)	13(46.5)	28(100)	
	대학(부)사회교육원	17(63.0)	0(0.0)	3(11.1)	7(25.9)	0(0.0)	27(100)	
	지자체산하기관	14(42.4)	2(2.0)	5(15.2)	12(36.4)	0(0.0)	33(100)	
	백화점 등 문화센터	27(77.1)	1(2.9)	2(5.7)	5(14.3)	0(0.0)	35(100)	
	개인공방 등 사설학원	15(57.7)	6(23.1)	2(7.7)	3(11.5)	0(0.0)	26(100)	
경 력	인터넷카페 등 동호회	14(43.8)	1(3.1)	8(25.0)	9(28.1)	0(0.0)	32(100)	65.53***
	1년 미만	59(64.8)	9(9.9)	6(6.6)	7(7.7)	10(11.0)	91(100)	
	1-2년	24(60.0)	3(7.5)	5(12.5)	7(17.5)	1(2.5)	40(100)	
	2-3년	17(54.8)	0(0.0)	7(22.6)	7(22.6)	0(0.0)	31(100)	
	3-4년	9(34.6)	1(3.8)	7(26.9)	8(30.8)	1(3.9)	26(100)	
	4년이상	5(17.9)	0(0.0)	2(7.1)	20(71.4)	1(3.6)	28(100)	
연 령	20대	16(47.1)	6(17.6)	3(8.8)	3(8.9)	6(17.6)	3(100)4	55.55***
	30대	47(61.0)	5(6.5)	9(11.7)	12(15.6)	4(5.2)	77(100)	
	40대	44(51.2)	2(2.3)	11(12.8)	27(31.4)	2(2.3)	86(100)	
	50대 이상	7(36.8)	0(0.0)	4(21.1)	7(36.8)	1(5.3)	19(100)	
직 업	전업주부	67(69.8)	4(4.2)	15(15.6)	10(10.4)	0(0.0)	96(100)	96.10***
	대학(원)생	9(34.6)	3(11.5)	2(7.7)	3(11.5)	9(34.5)	26(100)	
	교육자/전문강사	7(30.4)	0(0.0)	0(0.0)	15(65.2)	1(4.4)	23(100)	
	관련업 종사자	8(24.2)	1(3.0)	8(24.3)	14(42.4)	2(6.1)	33(100)	
	타업종사자/무직 등	23(60.5)	5(13.2)	2(5.3)	7(18.4)	1(2.6)	38(100)	

*** p < .001

호회의 경우에는 “교육기관의 패키지”와 함께 “개별적으로 준비”도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규방공예를 한 경력에 따라서는 경력이 낮을수록 또한 전업주부, 타 업종종사자 및 무직의 경우에는 “교육기관의 패키지 구입”의 비율이 높고, 규방공예 경력과 연령대가 높을수록, 교육자/전문강사 및 관련업종 종사자는 “공동준비” 및 “개별 준비”가 높게 나타났다. 전반적으로는 “교육기관의 패키지 구입”이 가장 높고, “개별 준비”, “공동 준비”, “재료 전문 업체 패키지 구입”, “교육기관에서 제공”의 순으로 나타났다.

5. 규방공예의 주된 제작방법

규방공예의 효율적인 제작방법을 탐색하기 위하여 제작방법에 대한 현황을 조사하였으며, 조사결과에서 교육기관, 경력, 연령대 및 직업에 따라 유의한 차가 인정되었으며, 그 결과는 <표 6>과 같다.

전반적으로 “전적으로 전통 손바느질”이 가장 높고, “한 품목에서 손바느질과 재봉틀 혼용” 및 “품목에 따라 손바느질 또는 재봉틀 사용”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전통문화전문기관, 대학부설 사회교육원, 개인공방 등 사설전문교육기관, 여성회관 등 지자체산하기관 및 백화점 등 문화

<표 6> 규방공예의 주된 제작방법

단위: 명(%)

제작방법		전적으로 전통 손바느질	한 작품에 손바느질/ 재봉틀 혼용	작품별로 손바느질 또는 재봉틀 사용	계	χ^2 -값
전 체		165(76.4)	31(14.4)	20(9.3)	216(100)	
기관	전통문화 전문기관	33(94.3)	1(2.9)	1(2.9)	35(100)	55.71***
	대학(원)	8(28.6)	13(46.4)	7(25.0)	28(100)	
	대학(부)사회교육원	18(66.7)	6(22.2)	3(11.1)	27(100)	
	지자체산하기관	28(84.8)	3(9.1)	2(6.1)	33(100)	
	백화점 등 문화센터	31(88.6)	3(8.6)	1(2.9)	35(100)	
	개인공방등 전문학원	25(96.2)	0(0.0)	1(3.8)	26(100)	
	인터넷카페등 동호회	22(68.8)	5(15.6)	5(15.6)	32(100)	
경력	1년미만	77(84.6)	8(8.8)	6(6.6)	91(100)	21.30**
	1-2년	33(82.5)	4(10.0)	3(7.5)	40(100)	
	2-3년	24(77.4)	4(12.9)	3(9.7)	31(100)	
	3-4년	18(69.2)	5(19.2)	3(11.5)	26(100)	
	4년이상	13(46.4)	10(35.7)	5(17.9)	28(100)	
연령	20대	20(58.8)	9(26.5)	5(14.7)	34(100)	18.80**
	30대	59(76.6)	10(13.0)	8(10.4)	77(100)	
	40대	69(80.2)	11(12.8)	6(7.0)	86(100)	
	50대 이상	17(89.4)	1(5.3)	1(5.3)	1(100)	
직업	전업주부	85(88.5)	8(8.3)	3(3.1)	96(100)	43.41***
	대학(원)생	12(46.2)	10(38.5)	4(15.4)	26(100)	
	교육자/강사	16(69.6)	3(13.0)	4(17.4)	23(100)	
	관련업 종사자	18(54.5)	6(18.2)	9(27.3)	33(100)	
	타업종/무직 등	34(89.5)	4(10.5)	0(0.0)	38(100)	

** p < .01 *** p < .001

센터 등 대부분의 교육기관과, 규방공예 경력이 낮을수록, 연령대가 높을수록, 전업주부, 타 업종 종사자 집단에서는 “손바느질” 비율이 높고, 대학(원), 규방공예 경력이 높을수록, 연령대가 낮을수록, 대학(원)생 및 규방공예 관련 전문가 집단일수록 “손바느질과 재봉틀을 혼용”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규방공예 기초 바느질법에는 감침질, 흠질, 박음질, 공그리기, 사뜨기 등이 있으며, 장식바느질법에는 상침, 잣씨장식, 박쥐매듭, 기러기매듭, 술, 금전지 등이 있으며, 솔기처리법에는 홑술, 가름술, 통술, 짚술, 곱술 등이 있다. 특히 감

침질, 사뜨기, 상침, 장식바느질은 손바느질로 가능하여 많은 작업시간과 노력이 소요된다.

6. 규방공예의 제작품 종류

규방공예품의 분류는 여러 측면에서 할 수 있으나, 전통 규방공예 재현품, 생활소품, 문화상품, 예술작품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에 규방공예의 교육내용 구성 및 올바른 방향 설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삼기 위하여 조사대상자들이 만드는 주된 규방공예품의 종류에 대해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 교육기관, 경력 및

<표 7> 규방공예의 주된 제작품의 종류

단위: 명(%)

주된 제작품		전통규방 공예품재현	실용적인 생활소품	판매 가능한 문화상품	창의적 예술품	계	χ^2 -값
전체		131(60.7)	46(21.3)	7(3.2)	32(14.8)	216(100)	48.87***
기관	전통문화전문기관	26(74.3)	2(5.7)	1(2.9)	6(17.1)	35(100)	
	대학(원)	16(57.1)	5(17.9)	2(7.1)	5(17.9)	28(100)	
	대학(부)평생교육원	18(66.7)	4(14.8)	1(3.7)	4(14.8)	27(100)	
	지자체산하기관	18(54.5)	8(25.8)	0(0.0)	7(21.2)	33(100)	
	백화점 등 문화센터	20(57.1)	13(37.1)	0(0.0)	2(5.7)	35(100)	
	개인공방 등 전문학원	15(57.7)	6(23.1)	2(7.7)	3(11.5)	26(100)	
	인터넷카페 등 동호회	18(56.3)	8(25.0)	1(3.1)	5(15.6)	32(100)	
경력	1년 미만	70(76.9)	18(19.8)	0(0.0)	3(3.3)	91(100)	50.95***
	1-2년	24(60.0)	8(20.0)	1(2.5)	7(17.5)	40(100)	
	2-3년	14(45.2)	10(32.3)	1(3.2)	6(19.3)	31(100)	
	3-4년	10(38.5)	6(23.1)	2(7.7)	8(30.7)	26(100)	
	4년 이상	13(46.4)	4(14.3)	3(10.7)	8(28.6)	28(100)	
직업	전업주부	65(67.7)	22(22.9)	1(1.0)	8(8.3)	96(100)	24.91*
	대학(원)생	17(65.4)	4(15.4)	0(0.0)	5(19.2)	26(100)	
	교육자/전문강사	8(34.8)	3(13.0)	3(13.1)	9(39.1)	23(100)	
	관련업종사자	13(39.4)	10(30.3)	2(6.1)	8(24.2)	33(100)	
	타업종종사자/무직 등	28(73.7)	7(18.4)	1(2.6)	2(5.3)	38(100)	

* p < .05 *** p < .001

직업에 따라 유의한 차가 인정되었다<표 7>.

대부분의 교육기관에서 “전통 규방공예품 재현”이 가장 높으나, 그 비율과 그 다음 순위는 교육기관에 따라 차이가 있다. 즉 전통문화전문기관의 경우 “전통규방공예품 재현”에 이어, 그 다음이 “창작예술품”이며, 실용생활소품 및 판매가능한 문화상품은 매우 낮고, 대학(원)과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은 “전통규방공예품 재현”이 높고, “실용적인 생활소품” 및 “창작예술품”이 그 다음이다. 지자체산하기관, 문화센터 및 동호회의 경우에는 “전통규방공예품 재현”이 가장 높고, “실용적인 생활소품”이 그 다음이며, “판매 가능한 상품”은 매우 낮다. 경력에서는 대체적으로 경력이 낮을수록 “전통 규방공예품 재현 작품”의 비율이 높고 경력이 많아질수록 “창작 예술품”의 비율이 높고, “판매 가능한 상품”의 비율이 다소 증가하지만 역시 매우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경력이 낮을 때는

전통 규방공예품을 주로 재현하면서 바느질법 등을 익히고, 경력이 많아짐에 따라 응용력이 향상되어 전통기법을 활용한 실용 생활소품, 창작품, 판매 가능한 상품 등을 제작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직업에서는 전업주부, 대학(원)생 및 타 업종 종사자, 무직 등 기타 집단에서는 “전통 규방공예 재현품”이, 교육자/전문강사 집단에서는 “창작 예술품”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이 “전통 규방공예 재현품”이며, “실용소품” 및 “판매가능 문화상품”이지만 다른 집단에 비해서 비율이 높은 편이다. 관련업종 종사자들은 “실용생활소품”이 가장 높고, “실용소품”이 그 다음이며, 창의적 작품 및 “판매 가능한 상품”은 낮게 나타났다. 전반적으로는, “전통 규방공예품 재현”이 가장 많으며 “실용적인 생활소품”, 창의적 예술작품”의 순이며, “판매 가능한 상품”은 매우 낮게 나타났다.

<표 8> 제작한 규방공예품의 처리방법

단위: 명(%)

변인		그냥 보관하고 있다	장식품으로 활용한다	실용적으로 사용한다	타인에게 선물한다	판매한다	계	χ^2 -값
전 체		112(51.9)	42(19.4)	36(16.7)	18(8.3)	8(3.7)	216(100)	
기관	전통문화전문기관	22(62.9)	9(25.7)	2(5.6)	1(2.9)	1(2.9)	35(100)	59.70***
	대학(원)	10(35.7)	9(32.2)	5(17.9)	2(7.1)	2(7.1)	28(100)	
	대학(부)평생교육원	16(59.3)	4(14.8)	4(14.8)	2(7.4)	1(3.7)	27(100)	
	지자체산하기관	16(48.5)	5(15.2)	9(27.3)	3(9.0)	0(0.0)	33(100)	
	백화점등 문화센터	20(57.1)	6(17.1)	5(14.3)	4(11.5)	0(0.0)	35(100)	
	개인공방등 전문학원	11(42.3)	3(11.5)	6(23.2)	3(11.5)	3(11.5)	26(100)	
	인터넷카페등 동호회	17(53.1)	6(18.8)	5(15.6)	3(9.4)	1(3.1)	32(100)	
경력	1년미만	67(73.6)	6(6.6)	12(13.2)	6(6.6)	0(0.0)	91(100)	54.27***
	1-2년	20(50.0)	8(20.0)	8(20.0)	3(7.5)	1(2.5)	40(100)	
	2-3년	12(38.7)	8(25.8)	7(22.6)	3(9.7)	1(3.2)	31(100)	
	3-4년	7(26.9)	10(38.5)	5(19.2)	2(7.7)	2(7.7)	26(100)	
	4년이상	6(21.4)	10(35.7)	4(14.3)	4(14.3)	4(14.3)	28(100)	
직업	전업주부	64(66.7)	8(8.3)	20(20.8)	3(3.13)	1(1.0)	96(100)	28.16*
	대학(원)생	11(42.3)	7(26.9)	4(15.4)	3(11.6)	1(3.8)	26(100)	
	교육자/전문강사	4(17.4)	9(39.1)	3(13.0)	4(17.4)	3(13.1)	23(100)	
	관련업 종사자	8(24.2)	13(39.4)	5(15.2)	5(15.1)	2(6.1)	33(100)	
	타업종종사자/무직등	23(60.5)	5(13.2)	6(15.8)	3(7.9)	1(2.6)	38(100)	

* p < .05 *** p < .001

7. 제작한 규방공예품의 처리방법

제작한 규방공예품의 활용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제작품의 처리방법에 대해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에서 교육기관, 경력 및 직업에 따라 유의한 차가 인정되었다<표 8>.

교육기관에 따라서는 전통문화전문기관, 대학(원), 대학부설 사회교육원, 백화점 등 문화센터는 “보관하고 있다”가 가장 높고, “장식품으로 활용”, “실생활에 사용”, “타인에게 선물”의 순이며, “판매”는 매우 낮게 나타났다. 지자체 산하기관과 인터넷카페 등 동호회의 경우에는 “보관하고 있다”가 가장 높고, “실생활에 사용”, “장식품 활용”, “타인에게 선물”의 순이며, “판매”는 더욱 낮다. 경력에서는 “보관한다”가 1년 미만에서는 가장 높고, 경력이 증가함에 따라 점차 감소하며 4년 이상은 “장식”, “판매”의 비율이 높아지며 “실생활에 사용”이 경력 2-3년까

지 증가하다가 그 후에는 점차 감소하였다. 직업에서는 전업주부는 “보관하고 있다”가 가장 높고 그 다음이 “실생활에 사용”이며, 대학(원)생은 “보관하고 있다”가 가장 많으나 전업주부 및 타업종 종사자/무직 등보다 낮으며, “장식품으로 활용”이 그 다음으로 나타났다. 교육자/전문강사 및 관련업종사자는 “실생활에 사용”이 낮고, “실생활 사용”이 가장 높다. 전반적으로는 “보관하고 있다”가 가장 높고, “장식품으로 활용”, “실생활에 사용”이 그 다음이며, “판매”는 매우 낮게 나타났다.

8. 규방공예 교육의 주요 분야에 대한 견해

규방공예 교육의 주요 분야에 대한 견해는 교육기관에 따라 유의한 차가 인정되었으며 그 결과는 <표 9>와 같다. 전통문화전문기관은 “활용

<표 9> 규방공예 교육의 주요 분야에 대한 견해

단위: 명(%)

중점적으로 교육할 분야	웃감 등 재료특성	기초바느질 익히기	각 품목별 바느질법	각 품목별 바느질법	활용 및 응용방법	계	χ^2 -값
전체	36(16.7)	26(12.1)	23(10.7)	20(9.3)	111(51.2)	216(100)	46.63**
전통문화전문기관	1(2.9)	11(31.4)	2(5.7)	4(11.4)	18(48.6)	36(100)	
대학(원) 정규과정	5(18.5)	0(0.0)	0(0.0)	2(7.4)	20(74.1)	27(100)	
대학원 부설 평생교육원	3(11.1)	3(11.1)	3(11.1)	1(3.7)	17(63.0)	27(100)	
여성회관 등 지자체산하기관	5(15.2)	4(12.1)	8(24.2)	4(12.1)	12(36.4)	33(100)	
백화점 등 시설문화센터	11(31.4)	5(14.3)	3(8.6)	1(2.9)	15(42.9)	35(100)	
개인공방 등 사설교육기관	6(23.1)	2(7.7)	3(11.5)	4(15.4)	11(42.3)	26(100)	
인터넷 카페 등 동호회	5(15.6)	1(3.1)	4(12.5)	4(12.5)	18(56.3)	32(100)	

** p < .01

<표 10> 선호하는 교육방법

단위: 명(%)

선호하는 교육방법		방법 1	방법 2	방법 3	계	χ^2 -값
전체		7(3.2)	84(38.9)	125(57.9)	216(100)	59.02***
기관	전통문화전문기관	0(0.0)	12(34.3)	23(65.7)	35(100)	
	대학(원) 정규과정	0(0.0)	1(3.6)	27(96.4)	28(100)	
	대학원 부설 평생교육원	0(0.0)	6(22.2)	21(77.8)	27(100)	
	여성회관 등 지자체산하기관	2(6.1)	21(63.6)	10(30.3)	33(100)	
	백화점 등 문화센터	3(8.6)	25(71.4)	7(20.0)	35(100)	
	개인공방 등 전문학원	2(7.7)	7(26.9)	17(65.4)	26(100)	
	인터넷 카페 등 동호회	0(0.0)	12(37.5)	20(62.5)	32(100)	
연령	20대	0(0.0)	5(14.7)	29(85.3)	34(100)	14.84*
	30대	4(5.2)	24(31.2)	46(59.7)	77(100)	
	40대	3(3.5)	42(48.8)	41(47.7)	86(100)	
	50대 이상	0(0.0)	10(52.6)	9(47.4)	19(100)	
직업	전업주부	7(7.3)	46(47.9)	43(44.8)	96(100)	30.74***
	대학(원)생	0(0.0)	1(3.8)	25(96.2)	26(100)	
	교육자/전문강사	0(0.0)	9(39.1)	14(60.9)	23(100)	
	관련업 종사자	0(0.0)	10(30.3)	23(69.7)	33(100)	
	타업종종사자/무직 등 기타	0(0.0)	18(47.4)	20(52.6)	38(100)	

* p < .05 *** p < .001

및 응용방법”이 가장 높고, “기초바느질법 익히기”, “각 품목별 바느질법”의 순이며, 대학(원)은 “활용 및 응용방법”이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재료 특성”이며,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은 “활용 및 응용방법”이 가장 많고 “각종의 바느질

법”, “기초바느질 익히기” “재료 특성”의 순이다. 여성회관 등 지자체 산하기관은 “활용 및 응용방법”이 가장 높고, “각 품목별 바느질법”이 그 다음이며, 문화센터, 동호회의 경우에도 “활용 및 응용방법”이 가장 높으나, “재료특성”이

가장 낮고, 그 나머지 항목들은 비슷하다. 전반적으로는 “활용 및 응용방법”이 가장 높고, “재료 특성”, “기초 바느질 익히기”, “각 품목별 마름질” 순이며, “각 품목별 바느질”은 가장 낮게 나타났다.

9. 선호하는 교육방법

규방공예 교육방법에 대한 예비조사를 행한 결과, “교재 없이, 견본을 제시하고, 강사가 설명하면서 시범을 보이면, 수강자들이 설명내용을 기록하고, 따라 직업하며 미완성한 부분은 과제로 해오는 방법이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방법 1), 방법 1과 같이 하되 교재를 사용하는 방법(방법 2), 방법 2와 같이 하되 설명 시에 동영상 등 시청각 자료를 활용하는 방법(방법 3)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에 선호하는 교육방법은 교육기관, 경력 및 직업에 따라 유의한 차가 인정되었다<표 10>.

교육기관에 따라 대학(원)은 “교재 및 동영상 등 시청각기자재 활용방법”의 선호도가 매우 높고, 대학부설 사회교육원, 전통문화전문기관,, 사설교육기관, 동호회가 그 다음이며, 백화점 등 문화센터, 지자체 산하기관은 “교재는 사용하는

방법 2”의 선호도 다소 높다. 연령대가 낮을수록 “교재 및 동영상 등 시청각기자재 활용하는 방법 3”의 선호도가 높고, 연령대가 높을수록 “교재를 사용하는 방법 2”의 선호도가 높다. 직업에서는 대학(원)생들은 “방법 3”의 선호도가 월등히 높고, 관련업종사자 및 교육자/전문강사 집단은 그 다음이며, 전업주부 및 타 업종종사자/무직등 기타집단은 “방법 2”와 “방법 3”가 비슷하다. 전반적으로 “교재 및 동영상 등 시청각기자재 사용”의 선호도가 가장 높고, 그 다음이 “교재 사용”이며 “교재 없이 교사의 설명과 시범”은 매우 낮게 나타났다.

10. 공인된 자격증의 필요성

공인자격증의 필요성에 대해 교육기관별, 경력에 따라 유의한 차가 인정되었다 <표 11>.

자격증이 “매우 필요” 및 “필요”의 합한 비율이 대학부설 사회교육원이 가장 높고, 대학(원), 동호회, 전통문화기관, 지자체산하기관, 사설교육기관, 문화센터 순이며, 경력에서는 2-3년이 가장 높고, 4년 이상, 3-4년, 1년 미만, 1-2년의 순으로. 규방공예를 전문으로 하는 집단, 경력이 많을수록 자격증의 필요성이 큰 것으로 인식하

<표 11> 공인된 수료증의 필요성 여부

단위: 명(%)

공인된 수료증의 필요성	매우 필요	필요	보통	불필요	전혀불필요	계	χ^2 -값	
전 체	24(11.1)	106(49.1)	50(23.1)	31(14.4)	5(2.3)	216(100)	64.23***	
기관	전통문화전문기관	6(17.1)	14(40.0)	10(28.6)	4(11.4)	1(2.9)		35(100)
	대학(원) 정규과정	5(17.9)	19(67.9)	3(10.7)	1(3.6)	0(0.0)		28(100)
	대학원부설사회교육원	7(25.9)	17(63.0)	3(11.1)	0(0.0)	0(0.0)		27(100)
	지자체산하기관	1(3.0)	17(51.5)	7(21.2)	7(21.2)	1(3.0)		33(100)
	백화점 등 문화센터	0(0.0)	9(25.7)	16(45.7)	9(25.7)	1(2.9)		35(100)
	개인공방 등 전문학원	1(3.8)	7(26.9)	9(34.6)	8(30.8)	1(3.8)		26(100)
	인터넷카페 등 동호회	4(12.5)	23(71.9)	2(6.3)	2(6.3)	1(3.1)	32(100)	
경력	1년미만	5(5.5)	41(45.1)	31(34.1)	13(14.3)	1(1.1)	91(100)	51.92***
	1-2년	3(7.5)	15(37.5)	13(32.5)	9(22.5)	0(0.0)	40(100)	
	2-3년	5(16.1)	22(71.0)	2(6.5)	1(3.2)	1(3.2)	31(100)	
	3-4년	8(30.8)	8(30.8)	2(7.7)	7(26.9)	1(3.8)	26(100)	
	4년 이상	3(10.7)	20(71.4)	2(7.1)	1(3.6)	2(7.1)	28(100)	

*** p < .001

며, 전반적으로는, “매우 필요” 및 “필요”가 높고, “불필요” 및 “전혀 불필요”는 매우 낮다.

11. 규방공예에서 가장 어려운 점

규방공예에서 어려운 점에 대해 예비조사 결과, 힘든 손바느질과 장시간의 작업시간 등(작업면), 재료입수의 어려움(재료면), 제품의 낮은 실용도와 활용성 등(제품 활용면), 제품판매의 어려움과 직업으로의 낮은 연계성(경제면)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 규방공예 현황을 개선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삼기 위해 규방공예에서 가장 어려운 점에 대해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 교육기관, 경력, 직업,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가 인

정되었다<표 12>.

교육기관에서는 전통문화전문기관, 대학부설 사회교육원, 자자체 산하기관 및 인터넷카페 등 동호회는 “활용면”, 대학(원)은 “작업면”, 백화점 등 문화센터와 개인공방 등 전문학원은 “재료면”이 각각 가장 높다. 경력에서는 경력이 증가할수록 “활용면”이 가장 높고, “작업면”과 “재료면”이 낮다, 연령에서 20대는 “작업면”이 가장 높고, “재료면”이 그 다음이며, 연령대가 높을수록 “작업면”보다는 “활용면” 및 “경제면”이 높다. 직업에서는 전업주부, 교육자/전문강사는 “활용면”과 “경제면”이 가장 높고, “재료면”, “작업면”, “교육면”의 순이며, 대학(원)은 “작업면”이 가장 높고, “교육면”이 그 다음이며, 관련업 종사자는

<표 12> 규방공예의 가장 어려운 점

단위: 명(%)

규방공예의 어려운 점	작업면	재료면	활용면	경제면	교육면	계	χ^2 -값	
전체	45(20.8)	57(26.4)	78(36.1)	31(14.4)	5(2.3)	216(100)	46.77***	
기관	전통문화전문기관	8(23.5)	11(32.4)	14(41.2)	1(2.9)	0(0.0)		34(100)
	대학(원)교과과정	12(41.4)	3(10.3)	3(10.3)	10(34.5)	1(3.4)		29(100)
	대학(부)평생교육원	4(14.3)	4(14.3)	13(46.4)	5(17.9)	2(7.1)		28(100)
	지자체산하기관	7(21.2)	11(33.3)	14(42.4)	1(3.0)	0(0.0)		33(100)
	백화점등 문화센터	5(14.3)	15(42.9)	12(34.3)	2(5.7)	1(2.9)		35(100)
	개인공방 등 전문학원	4(16.0)	9(36.0)	7(28.0)	5(20.0)	0(0.0)		25(100)
	인터넷카페 등 동호회	5(15.2)	4(12.1)	15(45.5)	7(21.2)	2(6.1)	33(100)	
경력	1년 미만	28(32.2)	37(42.5)	14(16.1)	8(9.2)	0(0.0)	91(100)	58.78***
	1-2년	10(25.0)	11(27.5)	14(35.0)	5(12.5)	1(2.5)	40(100)	
	2-3년	3(9.7)	4(12.9)	15(48.4)	9(29.0)	2(6.5)	31(100)	
	3-4년	2(7.7)	3(11.5)	17(65.4)	3(11.5)	2(7.7)	26(100)	
	4년 이상	2(7.1)	2(7.1)	18(64.3)	6(21.4)	1(3.6)	28(100)	
연령	20대	13(40.6)	9(28.1)	4(12.5)	6(18.8)	0(0.0)	34(100)	29.19**
	30대	10(13.0)	32(41.6)	25(32.5)	10(13.0)	1(1.3)	77(100)	
	40대	18(20.9)	14(16.3)	39(45.3)	13(15.1)	2(2.3)	86(100)	
	50대 이상	4(22.2)	2(11.1)	10(55.6)	2(11.1)	2(10.5)	19(100)	
직업	전업주부	18(19.4)	29(31.2)	39(41.9)	7(7.5)	0(0.0)	96(100)	40.40***
	대학(원)생	13(50.0)	3(11.5)	3(11.5)	7(26.9)	2(7.7)	26(100)	
	교육자/전문강사	4(17.4)	4(17.4)	12(52.2)	3(13.0)	2(8.7)	23(100)	
	관련업 종사자	3(9.1)	5(15.1)	15(45.5)	9(27.3)	1(3.0)	33(100)	
	타업종종사자/무직 등	7(18.9)	16(43.2)	9(24.3)	5(13.5)	0(0.0)	38(100)	

** p < .01 *** p < .001

“활용면”이 가장 높고, “교육면”이 그 다음이고, 타업종종사자/ 무직 등의 경우에는 “활용면”이 가장 높고, “재료면”, “작업면”, “교육면”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활용면”이 가장 높고, “재료면”, “작업면”, “경제면”, “교육면”의 순으로 나타났다.

12. 규방공예의 환경 조성

규방공예의 가장 시급히 조성할 환경에 대한 자유응답식 예비조사에서 규방공예의 국내외 인식 및 보급을 위한 “홍보”, 우수한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제도”, “재료 공급체계”, 제품의 “유통체계”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들을 세부항목으로 본조사를 한 결과, 교육기관, 경력과 직업에 따라 유의한 차가 인정되었다<표 13>.

교육기관에 따라서는 전통문화전문기관, 대학

부설 사회교육원은 “제품의 유통체계”가, 대학(원)은 “교육제도”가, 백화점 등 문화센터 및 인터넷카페 등 동호회는 “재료공급 시스템”이, 지자체 산하기관은 “재료공급 시스템” 및 “제품의 유통체계”를, 개인공방은 “교육제도” 및 “재료공급시스템” 등이 각각 가장 높게 나타났다. 경력에서는 경력이 많을수록 “홍보”와 “재료 공급체계”는 낮고, “제품의 유통체계”가 높으며, “교육제도”는 큰 변화가 없다. 직업면에서는 전업주부와 관련업 종사자는 “제품 유통체계”, 대학(원) 및 교육자/전문강사는 “교육제도”, 타업종종사자/무직은 “재료 공급체계”가 가장 높다.

13. 규방공예 교육기관에의 건의 사항

규방공예의 효율적인 교육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건의 사항을 조사한 결, 교육기관에 따라

<표 13> 규방공예의 시급히 조성해야 할 환경

단위: 명(%)

규방공예 활동에서 개선할 점		규방공예의 홍보	교육제도	재료공급 체계	제품의 유통체계	계	χ^2 -값
전체		49(23.0)	49(23.0)	54(24.4)	29(13.4)	216(100)	48.40***
기관	전통문화전문기관	10(30.1)	9(25.7)	4(11.4)	12(34.3)	35(100)	
	대학(원)	9(32.1)	13(46.5)	3(10.7)	3(10.7)	28(100)	
	대학(부) 사회교육원	6(22.2)	7(25.9)	5(18.6)	9(33.3)	27(100)	
	지자체산하기관	3(9.1)	4(12.1)	13(39.4)	13(39.4)	33(100)	
	백화점등 문화센터	11(31.4)	3(8.6)	11(31.4)	10(28.6)	35(100)	
	개인공방 등 전문학원	4(17.4)	7(30.4)	7(30.4)	5(21.8)	26(100)	
	인터넷카페 등 동호회	6(18.7)	6(18.8)	11(34.4)	9(28.1)	32(100)	
경력	1년 미만	31(34.8)	20(22.5)	27(30.3)	11(12.4)	91(100)	46.58***
	1-2년	7(17.9)	8(20.6)	11(28.2)	13(33.3)	40(100)	
	2-3년	5(16.1)	8(25.8)	7(22.6)	11(35.5)	31(100)	
	3-4년	3(11.5)	6(23.1)	5(19.2)	12(46.2)	26(100)	
	4년 이상	3(10.7)	7(25.0)	4(14.3)	14(50.0)	28(100)	
직업	전업주부	23(24.2)	13(13.7)	27(28.4)	32(33.7)	96(100)	30.00**
	대학(원)생	6(24.0)	11(44.0)	4(16.0)	4(16.0)	26(100)	
	교육자/전문강사	5(21.7)	9(39.2)	4(17.4)	5(21.7)	23(100)	
	관련업 종사자	6(18.2)	10(30.3)	4(12.1)	13(39.4)	33(100)	
	타업종종사자/무직 등	9(24.3)	6(16.3)	15(40.5)	7(18.9)	38(100)	

** p < .01 *** p < .001

유의한 차가 인정되었다<표 14>.

전통문화전문기관과 대학(원)은 “규방공예 전문교재 개발”이 가장 높고, “교육내용의 다양화”가 그 다음이며, 그 외 기관은 “교육내용의 다양

화”가 가장 높고, “규방공예 전문교재 개발”이 그 다음이다. 전반적으로 “교육내용의 다양화”가 가장 높고, “규방공예 전문교재 개발”, “교육비 및 재료비 인하”, “강사의 자질 향상”, “교육

<표 14> 규방공예 교육기관에의 건의 사항

단위: 명(%)

규방공예 교육의 보완할 점	전문교재 개발	교육내용의 다양화	강사의 자질 검정	교육방법의 개선	교육비 및 재료수급면	계	χ^2 -값
전 체	75(34.7)	93(43.1)	17(7.9)	7(3.2)	24(11.1)	216(100)	37.04*
전통문화전문기관	15(42.9)	13(37.1)	2(5.7)	1(2.9)	4(11.4)	35(100)	
대학(원) 정규과정	15(53.6)	11(39.3)	1(3.6)	1(3.6)	0(0.0)	28(100)	
대학원부설 사회교육원	9(33.3)	10(37.0)	3(11.1)	1(3.7)	4(14.8)	27(100)	
여성회관동지자체산하기관	9(27.3)	18(54.5)	3(9.1)	0(0.0)	3(9.1)	33(100)	
백화점 등 사설문화센터	9(25.7)	19(54.3)	5(14.3)	0(0.0)	2(5.7)	35(100)	
개인공방등 사설교육기관	8(30.8)	10(38.5)	1(3.8)	4(15.4)	3(11.5)	26(100)	
인터넷 카페 등 동호회	10(31.3)	12(37.5)	2(6.3)	0(0.0)	8(25.0)	32(100)	

* p < .05

<표 15> 규방공예를 하는 보람

단위: 명(%)

규방공예를 하는 보람의 관점	전통 보존의 자부심	작업과정의 즐거움	작품제작의 성취감	제품판매, 강사 등 경제활동	계	χ^2 -값	
전체	68(31.9)	39(18.3)	103(48.4)	3(1.4)	216(100)	53.26***	
전통문화전문기관	15(42.9)	6(17.1)	14(40.0)	0(0.0)	35(100)		
대학(원)	16(59.3)	6(22.2)	6(18.5)	0(0.0)	28(100)		
대학(부)사회교육원	7(26.9)	2(7.7)	16(61.5)	2(7.7)	27(100)		
지자체산하기관	5(15.2)	9(27.3)	19(57.6)	0(0.0)	33(100)		
백화점등 문화센터	6(17.1)	6(17.1)	23(65.7)	0(0.0)	35(100)		
개인공방등전문학원	5(19.2)	8(30.8)	13(50.0)	0(0.0)	26(100)		
인터넷카페등동호회	14(45.2)	3(9.7)	14(45.2)	1(3.2)	32(100)		
경력	1년 미만	26(28.6)	24(26.4)	41(45.1)	0(0.0)	91(100)	28.90**
1-2년	11(28.9)	7(18.4)	22(56.6)	0(0.0)	40(100)		
2-3년	9(29.0)	4(12.9)	17(54.8)	1(3.2)	31(100)		
3-4년	9(34.6)	4(15.4)	13(50.0)	0(0.0)	26(100)		
4년 이상	13(48.1)	1(0.5)	12(44.4)	2(7.4)	28(100)		
직업	전업주부	27(28.1)	19(19.8)	49(51.0)	0(0.0)	96(100)	22.18*
대학(원)생	14(56.0)	12(48.0)	10(4.7)	0(0.0)	26(100)		
교육자/전문강사	10(43.5)	2(8.7)	9(39.1)	2(8.7)	23(100)		
관련업 종사자	8(25.8)	6(16.1)	18(58.1)	1(3.0)	33(100)		
타업종종사자/무직 등	11(28.9)	9(23.7)	18(47.4)	0(0.0)	38(100)		

* p < .05 ** p < .01 *** p < .001

방법의 개선”의 순으로 나타났다.

14. 규방공예를 하는 보람

규방공예 발전방향 모색을 위해 규방공예의 보람에 대해 조사하였으며, 교육기관, 경력 및 직업에 따라 유의한 차가 인정되었다<표 15>.

교육기관에 따라 전통문화전문기관과 대학(원)은 “전통을 보존한다는 자부심”이, 인터넷카페 등 동호회는 “전통을 보존한다는 자부심”과 “작품제작의 성취감”이, 그 외 교육기관은 “작품 제작의 성취감”이 각각 가장 높다. 경력에 상관없이 “작품 제작의 성취감”이 가장 높고, 경력이 많을수록 “전통 보존의 자부심”은 높으며, “작업과정의 즐거움” 낮아진다. 직업에서는 전업주부, 관련업 종사자 및 타업종 종사자/무직은 “작품제작의 성취감”이, 대학(원)생과 교육자/전문강사는 “전통보존의 자부심”이 각각 가장 높다. 전반적으로는 “작품제작의 성취감”이 가장 높고, “전통 보존의 자부심”, “작업과정의 즐거움”의 순이며, “제품판매/강사 등 경제활동”은 매우 낮게 나타났다.

IV. 결론

규방공예 현황 조사 및 분석한 자료를 기초로 하여, 규방공예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모색하였으며,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규방공예” 용어의 의미가 혼용 되므로, 규방공예의 의미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

둘째, 규방공예 활동의 목적이 교육기관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교육기관별 피교육자들이 추구하는 목적에 부합 되도록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규방공예의 경제활동 목적달성도가 매우 낮으므로, 이의 개선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셋째 규방공예 교육재료로 폐키지 사용 비율이 가장 높은데, 학습 효율성, 편리성, 저비용, 다양화, 창의성 개발 등을 도모하는 교육재료 공급체제 구축이 요구된다.

넷째, 규방공예의 손바느질 비율이 높는데, 재봉틀 개발 등을 통하여 이원화 함으로써, 전

통성 보존과 작업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다섯 번째, 전통규방공예 재현품에 취중 되어 있어, 규방공예의 경제활동 등을 활성화하기 위해 교육내용(제작품)을 개별화하 또는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제작한 규방공예품을 다수가 “보관”하고 있어 활용도가 낮으므로 제작품의 종류 등 활용성을 높이는 방안 모색이 절실히 요구된다.

일곱 번째, 규방공예 교육의 중요 분야로 “활용 및 응용방법”이 가장 높으므로 이를 강화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근본적으로는 기초 바느질, 재료 특성, 마름질, 바느질 및 응용 및 활용 등 전반에 대해 균형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덟 번째. 규방공예 교수법으로 “교재 및 동영상 등 시청각기자재 사용”을 가장 선호하며, 교육효과가 크므로, 교재와 시청각 자료 개발 및 시설 구비 등이 요구된다.

아홉 번째, 규방공예 자격증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높으므로 자격 취득에 필요한 교육, 평가내용, 기준,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자격 취득자 대우와 활용에 대한 연구도 요구된다.

열 번째 규방공예에서 “제작품의 활용성”, “재료면”, “작업면”, “관료개혁”, “직업으로의 낮은 연계성” 등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들의 개선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

열한 번째, “ 규방공예의 국내외 홍보”, “우수한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제도”, “재료 공급체계” 및 “제품의 유통체계”의 여건을 조성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열두 번째, 규방공예 “교육내용의 다양화”, “전문교재 개발” “교육경비 인하”, “강사자질 향상”, “교수법 개선” 등이 요구되므로 이들을 개선할 구체적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이상과 같이, 규방공예 활동의 보람을 극대화 함으로써 규방공예 인구를 증가되고 이들에 의해 규방공예가 전통섬유공예로 보존되고, 또한 전통 규방공예를 응용한 현대패션을 상품을 개발, 보급되어 궁극적으로는 규방공예와 관련된 문화산업 및 섬유패션산업의 발전과 국제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참고 문헌

- 1) 허동화 (1997).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 규방 문화*. 서울: 현암사, pp.305-327.
- 2) 허동화 (2004). *이렇게 예쁜 보자기*. 한국자수 발물관, pp.315-361.
- 3) 김지영, 김문진 (2001). *규방공예*. 서울: 킷처라인, pp.16-18.
- 4) 이미석 (2005). *우리 규방문화와 침선소품*. 한국 예술정보(주), pp.27-28, 35-43.
- 5) 장숙환 (2002). *전통 장신구*. 서울: 대원사, pp.65-108.
- 6) 김현희 (2000). *보자기*. 한국문화재보호재단, pp.5-8.
- 7) 김정호, 이미석 (2004). *천연염색과 규방공예*. 한남대학교 출판부, p.31.
- 8) 이미석, 이선재 (1997). 향집에 관한 연구. *복식* 33, pp.117-118.
- 9) 김옥광 (1999). 조선시대의 보자기에 나타난 문양연구. *한국공예논총*, pp.87-113.
- 10) 이정수 (2006). 조각보의 분석적 연구. 동덕여자대학교패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11) 장정현 (2001). 한국 전통 주머니의 조형미. 부산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2) 은영자, 정명숙 (2000). 조선시대 노리개에 반영된 여성의 가치관 고찰. *계명대학교 과학논집 10권*, pp.11-33.
- 13) 김호정 (2003). 규방공예의 전통 침선기법에 관한 연구.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4) 이수진 (2005). 조선 규장문화의 추상적 이미지 표현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5) 이미석, 이선재 (2002). 조선시대 규방문화와 침선소품에 관한 연구. *복식학회* 54(6), pp. 58-73.
- 16) 장정현, 권영숙 (2003). 한국 전통주머니에 나타난 감성이미지. *복식학회* 53(4), pp. 8-21.
- 17) 이정수, 송명건 (2006). 조각보의 면구성과 테셀레이션 비교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30(6), pp.948-960.
- 18) 김영주 (2000). 조각보에 나타난 한국인의 미의식과 예술성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9) 김현호 (1984). 조선시대 후기 보에 나타난 색채에 관한 고찰.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0) 양지나, 이상은 (2006). 한국과 프랑스의 전통주머니 비교 연구 -16세기부터 20세기 초까지를 중심으로-. *한국의상디자인학회지* 8(2), pp.135-144.
- 21) 김정미 (2006). 조각보의 조형성을 응용한 현대 복시디자인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30(4), pp.507-518.
- 22) 최윤희, 은영자 (2005). 조각보의 면구성과 색채를 응용한 의복의 이미지 연구. *한국 의류산업학회* 7(2), pp.243-252.
- 23) 김봉희 (2007). 조선시대 여성 장신구의 현대적 변용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24) 정운진 (2000). 조선조 자수주머니 문양을 응용한 의상디자인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5) 최유미 (2005). 조선시대 보자기 문양을 활용한 DTP 제품디자인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5) 김민수, 홍웅선 (2000). *국어사전*. 서울: 어문각, p.214.
- 26) 한국의 전통공예. 자료검색일 2008. 9. 5. 자료 출처 <http://www.koreafolkart.com/>
- 27) 대구국립박물관 (2002). *한국 전통복식 2천년*. 서울: 통천문화사, p125.